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14 회차 ,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 2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4,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2부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 목적, 약속을 자신 안에서 구체화하셨지만, 또한 공동체를 창조하는 시작에서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과 그가 어떻게 구약과 구약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발전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신약 본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2장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성전의 구성원이거나, 건축 블록이거나, 건축 돌입니다. 하지만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교회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우리는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소유라는 개념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사랑하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의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그의 특별한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이 택함받은 백성,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이 언어에 유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선택하거나 선출하는 언어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저자는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표현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묘사한 내용을 읽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돌아가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일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택함받은 백성, 왕족, 제사장들의 왕국,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 모든 언어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바로 나왔지만, 택함받은 사람들의 언어는 다른 구약성경 본문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요점은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언어를 취해 이제 교회, 즉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적용하여, 그들이 구약성경 이스라엘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어떤 면에서는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연속이라고 다시 한 번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목적과 의도를 충족시킵니다.

우리는 나중에 출애굽기의 그 본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의 또 다른 구절이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 본문에 호소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약의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와 땅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구절에 약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또 다른 경고 구절의 한가운데에 있는데, 그 구절에서 저자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기를 거부했고, 반역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히브리서에서 독자들에게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문턱에 서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저자의 말은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고 믿기를 거부함으로써 한 것처럼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저자가 시편 95장을 길게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 시편 95장은 7절에서 시작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할 때 반역할 때와 같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이 끝나는데, 여전히 저자는 시편 95장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분노하여 맹세하였노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자는 시편 95장을 사용하여 오늘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 안식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셨던 안식,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 때 누리셨던 안식, 그리고 안식일의 안식과 연결하고, 심지어 다시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4장 1절부터 그의 백성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백성, 그의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합시다.

이제, 왜 제가 이 구절을 언급할까요? 이 구절은 안식과 땅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과 구약시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의 성취로, 이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부지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광야 세대와 이제 다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듯합니다. 성경 신학에 관한 책인 *The Ways of God*에서 찰스 스코비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바울의 서신에서 본 것과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본 것,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스코비는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건,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독특하고 결정적인 행위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연속성을 이룹니다.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은 이제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이 진술에서 우리가 살펴본 텍스트 중 일부를 읽어야 할 것이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성취이며 그 약속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교회는 쇠신되고 재구성되며, 쇠신되고 재구성된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요소를 모두 보아야 하며, 그 두 관점을 모두 억누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장 분명한 지표 중 하나는, 제 생각에, 에베소서 2장의 본문인데, 우리는 다시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교회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통합된 것으로 묘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분리된 자, 약속의 언약에 낯선 자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의 약속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축복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 그들은 한때 멀리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가 어떻게 두 소외된 당사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평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연합시켜 평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걸 읽어 볼게요. 특히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요소를 알아차리셨으면 합니다. 연속성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에 대한 언급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언약에 대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제, 가정은 그들이 이스라엘 시민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언약의 참여자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과 그 약속에 가까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이사야에 대한 모든 언급과 암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추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때때로, 각주나 여백이 있는 성경을 보거나 구약 참조에 맞춰져 있거나 민감한 주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 전체에 구약 참조, 특히 이사야 참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주목하세요.

우리가 말했듯이, 멀고 가까운 곳에 평화를 만드는 언어,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언어, 새로움의 언어, 이 모든 것은 이사야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연속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통합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겠다는 이사야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불연속성의 언어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무리를 만드셨고, 율법과 명령과 규정을 그의 육체로 폐하심으로써 적대감의 장벽, 곧 분리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의 목적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서 한 새 인류를 창조하여 평화를 이루고, 한 몸으로 두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의 적대감을 죽이셨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파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 대한 또 다른 명확한 암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우리는 모두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다는 언어와 구약의 성전은 한 영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주의를 끌고 싶은 것은 연속성, 즉 구약으로의 참조, 이스라엘의 약속에 대한 참조, 이사야의 회복 약속의 성취로서 두 가지가 하나의 새로운 몸으로 통합되는 것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몇 가지를 주목하세요. 우선, 창조 언어에 주목하세요. 둘은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창조됩니다.

그리고 15절을 주목하세요. 하지만 16절에서 주목하세요. 그들은 또한 한 몸으로 모아지고 화해합니다. 둘 다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신약으로 이어지는 연속성 그

이상임을 주목하세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지만, 그것이 연속성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몸이 새로운 인류로 묘사되고, 둘 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었고, 둘 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따라서 찰스 스코비가 그의 성경 신학인 *The Ways of God*에서 다시 인용하자면, 그는 교회를 묘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 백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말론적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인류의 핵심을 입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진술이 에베소서 2장에서 발견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모두 포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속성은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새로운 인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스코비를 인용하자면,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고, 그는 이스라엘을 인용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이스라엘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로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핵심을 입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재구성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행위,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로 인해 생겨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 둘 다요.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사실상 모든 신약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실제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데스몬드 알렉산더의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윌리엄 덤브렐의 시작의 끝이라는 책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책 모두 성경 신학입니다. 그저 신약 신학이 아니라 성경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계시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21장과 22장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장들에서 모든 주요 주제가 표현되고 발전되고 절정에 달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주제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기록하기 위해 돌아갑니다.

글쎄요, 우리는 거기서 끝낼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끝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21장과 22장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언급할 다른 섹션이 몇 개 있습니다.

계시록 1장과 6절 다시. 계시록 1장과 6절에서, 책의 바로 시작 부분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신호하고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시록 전체에 걸쳐 전개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1장 6절에서 시작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돌아가서 5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즉 우리를 그의 피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요한은 베드로전서와 정확히 같은 본문,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언급하신 출애굽기 19장 6절을 취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베드로처럼 이 본문을 취하여 자신의 교회, 자신이 말을 건넨 교회들에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4절은 요한이 아시아 속주, 소아시아, 혹은 현대 터키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로 이방인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는 유대인 회원들이 있을지 몰라도, 주로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묘사하며, 그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본 것처럼, 이제 교회는 제사장 왕국이 되고, 온 세상과 창조물에 하나님의 현존을 중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체현하고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을 표현합니다. 아마도 그 생각은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성취해야 했던 것일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것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재구성된 이스라엘에 의해 성취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과 6절은 이미 우리가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성경 언어로 설명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 대한 무언가를 밝히거나 설명하기 위한 편리한 은유나 꾸러미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이제 구약성경에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구현된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하고 성취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미지와 공감되는 또 다른 본문은 7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에서, 저는 7장의 전반부를 읽지 않겠지만, 4절부터 시작해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그때 인봉된 자들의 수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 전에 그는 그의 백성을 인봉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시작되고, 그때 나는 인봉된 자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4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죄송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와 각 지파에 속한 12,000명의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도, 저는 여기의 144,000명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수를 세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계시록 1장 6절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언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제안합니다. 즉, 이 144,000명의 이미지는 아마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회중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144,000명의 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이제, 저는 그 숫자가 아마도 주로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12에 주목하세요.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제 12사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에서 12지파와 12사도가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상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2지파와 12사도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일어나는 일은 저자가 12 곱하기 12, 12지파와 각각 12,000을 취하고, 아마도 이것은 12지파와 12사도를 반영하고, 그것을 곱하여 144를 얻고, 그런 다음 1,000을 곱하여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의 완전한 성취임을 나타냅니다. 이제, 저는 아마도 여기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12지파의 숫자와 12지파에 대한 언급은 아마도 이사야에서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약속한 대로, 그리고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서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회복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44,000에 대한 언급과 12,000이라는 지파의 구체적인 숫자를 발견할 때, 저는 이것이 요한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언어를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다시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다시, 12지파의 수로 언급함으로써, 요한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이 구절에서 12라는 숫자의 확산으로 증명됩니다.

다음 섹션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 환상인 큰 무리가 9절에서 시작됩니다. 14만 4천 명이 아마도 교회, 즉 하나님의 참 백성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한 계시록 전반에 걸쳐 요한이 무언가를 듣고 돌아서서 무언가를 보고 같은 내용이라는 핵심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겠지만 요한이 듣고, 장로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유다 지파의 사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존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사자를 보지 않고, 죽은 채로 나타난 양을 봅니다. 사자와 양이라는 두 가지 다른 이미지가 같은 사람을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대조적인 두 개의 이미지, 즉 숫자가 매겨진 그룹과 셀 수 없는 그룹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144,000명을 듣습니다. 이제 9절에서 “내가 보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더라”고 말합니다. 더 자세히 논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들은 같은 그룹을 가리키고, 단지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미 이 셀 수 없는 무리, 셀 수 없는 무리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유대 언어와도 공감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연결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일부로서,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므로 아무도 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이 아무도 셀 수 없거나 셀 수 없다는 말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직접 언급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흥미로운 점은 씨의 약속, 아브라함의 수많은 씨의 약속이 이제 민족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모든 언어, 종족, 언어, 민족, 이스라엘을 포함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리에서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흥미로운 점은 144,000명과 셀 수 없는 무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언급하거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구약성경 본문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 7장에서 144,000명과 큰 무리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씨의 무수히 많은 무리의 약속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백성에게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말하는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아니 실제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있고, 저는 본문 전체를 읽지 않고 몇 가지 부분만 읽겠습니다.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21:3에서 새 언약 언어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설명하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미 새 예루살렘이 아마도 사람들 자체를 상징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지만 요한은 이미 신부가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일찍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미래에 문자적인 예루살렘이나 도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순히 요한이 21절에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을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하지만, 묘사하기 전에 요한은 요한 계시록 21:3에서 새 언약의 맥락에 두고, 요한은 "내가 음성을 들으니, 보라, 거처는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입니다.

21장 3절에서 21장 3절과 구약 언약 공식, 특히 에스겔 37장 사이에 발견되는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요한이 여기서 암시하는 구약 언약 공식에서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항상 단수라는 것입니다. 반면 여기서 요한은 복수를 사용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또는 인류 가운데 있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영어로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복수형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족속과 언어와 언어와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새 창조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민족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든 족속, 언어와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1장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아직 아닌 차원에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새 예루살렘에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은 이스라엘의 지파와 동일시되며, 에스겔 48장을 암시하지만, 요한은 12절에서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문에는 12명의 천사가 있었으며,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인 14절을 주목하세요. 성벽에는 12개의 기초가 있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성취된 것을 본 것과 비슷하게, 이제 요한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개 지파의 12개 이름이 있는 12개의 문으로 상징되지만,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도들로 상징되는 교회는 기초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언어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다시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혼인 이미지나 결혼 이미지 또는 남편 아내 이미지의 언어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은 9절에서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그릇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명이 와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 주리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미라는 측면을 표현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는 이미 어린 양의 신부, 곧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완성된 성취를 봅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의 완성을 발견하는데, 요한은 이제 아내, 어린 양의 신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특히 이사야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언어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생각되었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묘사한 데서 이미 성취되었지만, 지금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된 관계가 어린 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요점을 간단히 말하고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선을 따라 발전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은 신약에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새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확립되고, 비준되고, 성취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모아질 양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안에서 성취됩니다. 모든 약속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새롭게 된 백성이라는 점에서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새로운 창조 행위로 함께 모여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거기에는 불연속성의 척도를 시사하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말했듯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해하거나 이해하려는 다양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전적으로 경륜주의가 불연속성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더 진보적인 경륜주의 운동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고전적으로, 분배주의는 상당히 극단적인 양의 불연속성을 주장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상 백성, 하나님의 물리적 민족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리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하신 약속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 그들과 약속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임시 백성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경륜주의는 스펙트럼의 불연속성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더 언약적인 접근 방식은 더

많은 연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사실, 저는 한 연설자가 창세기 12장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교회의 시작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약 신학으로 알려진 일부 접근법은 더 많은 연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종종 대체 신학으로 알려진 것을 언급했는데, 이는 불연속성 범주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제 그것을 대체하는 교회에서만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주장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여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의 약속을 이제 성취하는 실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단절성과 연속성을 모두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찰스 스코비의 성경 신학, *The Ways of Our God*에서 인용하자면, 그는 교회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으로 갱신되고 재구성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발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확장되고, 재구성되고, 쇄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했듯이, 그들은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창조됩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이 새로운 행위에서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때, 우리는 실제로 아담과 이브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관계를 맺은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셨지만 아담과 이브는 실패했고, 죄 때문에 그들은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사실 아브라함과 그에게서 나올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아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첫 번째 인류에 대한 의도를 어떻게 이루실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그냥 폐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위대한 민족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함으로써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담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회복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쇄신되는 때를 기대했고, 그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에 도달하면 이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참 씨로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목적을 구현하고 성취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는 용어로 말하는 대신, 확장과 갱신 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방인을 포함하도록 이스라엘을 확장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종말론적 백성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국제적 백성, 하나님의 초문화적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언어, 종족, 국가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거하는 사람들에서 그 완성을 발견합니다. 이제,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의 발전에서 보았던 것에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백성의 신학에 대한 이해는 특히 우리 미국적 개인주의나 개인을 놀라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문화에 대한 교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속한 미국 문화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모든 것이 개인, 내 권리, 또는 개인으로서의 나, 또는 개인으로서 내가 받을 만한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TV를 켜면 모든 광고가 내 개인주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대한 이해는 개인주의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획은 항상 기업 정체성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획은 항상 교회의 창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1절에서 22절 앞의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았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위와는 별개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11에서 22까지는 계속해서 증명하지만, 그것은 내가 이 새로운 인류, 이 새로운 몸,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통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신 것은 결코 개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의 일부, 내가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의 일부, 새 언약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경적 신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연구하는 것보다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데 더 나은 동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는 공동체를 창조하여 그분이 우리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배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창조하여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봉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개인주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학에 대한 이해는 선교의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고, 모든 종족, 언어, 언어의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때, 그것은 선교의 동기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길을 잃고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신은 전부이고, 신은 전부 사람들을 창조하고, 그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찾고, 그는 그들의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의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 신학에 대한 이해보다 선교에 대한 더 큰 동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이 모든 종족, 언어,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에 참여해야 하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한 선교에 참여해야 하며,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것이 국가, 현대 국가 또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많은 세부 사항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고,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일까요? 저는 얼마 전, 한 달 전쯤 이스라엘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며,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대답하면서 이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이나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보는 방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너무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성경 예언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역사 속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과 새로운 창조를 세우기 위해 돌아오실 때, 제가 예언서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신약을 볼 때, 더 넓은 정경을 볼 때, 제가 발견하는 것은 회복된 백성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새롭게 된 백성의 약속의 성취가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지금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약속을 성취하셨고, 예수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셨고, 예수 자신이 이스라엘의 약속을 성취하셨으며, 그 다음에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복의 약속은 제가 신약성경을 읽을 때 역사 속의 이스라엘 국가 재건이나 다른 어떤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쇄신하고, 재구성하고, 창조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대 이스라엘의 존재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하심을 보여주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신실하심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신약을 주의 깊게 읽을 때,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일까요?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씨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과 같은 본문을 읽을 때, 저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국가적 이스라엘의 미래, 또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른 모든 사람이 하는 방식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계시록 21장의 새 창조에서 그 정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지만, 제 생각에 현대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떤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와 그가 창조하는 새로운 사람들에서 성취를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약의 예언적 본문과 바울이 로마서 11장과 같은 본문에서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여기서는 별개의 미래가 아니며, 그들이 무언가를 얻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스라엘도 약속의 성취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도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충만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다시 접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로 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요점이 될 수 있는데,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겸손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형성하시는 것을 볼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도록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의 백성을 부르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으시는 분이시므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도권으로만 존재합니다.

교회는 신명기와 같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발견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그 위상이나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섬기고 경배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도권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성경적-신학적 주제를 요약하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한 신약 신학의 성경적-신학적 주제를 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인류로서 지금 선택되어 성취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시고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담과 이브가 했던 것과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결국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확장해서 그의 추종자, 예수는 사람들의 핵심, 그를 중심으로 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에게 응답할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차원을 공유합니다

.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은 이미 확립되고 창조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든 언어, 종족, 언어와 사람들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는 새롭게 회복된 창조에서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새로운 창조에서 완성된 존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다음 두 가지 주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2부입니다.